

## + 우리들의 정성 【12월 19일(월) ~ 12월 25일(주일)】

주님성탄대축일 주일헌금		5,209,100원	합동미사예물		6,109,000원	성야/주일미사 참여자수		470명/562명	
교 무 금 10,890,000원	강응범		강진웅	프란치스코		권종대	유스티노	김관수	토 마 스
	김대원	요 한	김보상	바 울 로		김보성	대건 안드레아	김성욱	안또니오
	김옥희	스테파니아	김용진	안드레아		김재삼	스테파노	김재성	안 당
	김종건	분 도	김지은	마 리 아		김진철	요 셉	김철애	실비아
	김 현 제	노	김형자	레 지 나		맹서현	스 텔 라	문경무	프란치스코
	박광수	바 오 로	박진양	이 삭		방성호	프란치스코	소 준	바 오 로
	송영인	안 젤 라	송영자	가타리나		송해인	클라우디아	신국선	
	신승철	바 오 로	신영균	안드레아		신현성	세바스티아노	양현정	마 리 아
	오은영	마리아막달레나	유연주	베로니카		유위규	안 나	유정일	요 셉
	윤석기	베 드 로	윤영찬	스테파노		윤일상	프란치스코	은찬기	미 카 엘
	이수연	모 니 카	이승악	요 한		이승호	아브라함	이영선	카타리나
	이은미	모 니 카	이인희	루 시 아		이정숙	세실리아	이종제	세례자요한
	이종화	요 셉	이해동	요 셉		이현기	마 티 아	인동현	스테파노
	임경순	미카엘라	임은식	카타리나		장순덕	마 리 아	장영준	빈첸시오
	장진수	베 드 로	정광호	마 태 오		정현주	요세피나	조운래	즈카리아
	조태봉	라우렌시오	조홍자	세실리아		채명관		천서향	플 로 라
	최연분	아 가 다	최영만	알베르토		최해봉	레 오	추정경	아나스타샤
	추종양		하진복	프란치스코		하혜영	스테파니아	한진희	베르델라
	허욱	스테파노	홍진섭	즈가리야		황태현	안드레아		
감 사 헌 금	김병자	아가다	100,000	김상모	베드로	100,000	신국선	100,000	
	안숙자	모니카	100,000	양혜자	그레첸시아	100,000	윤용자	요안나	50,000
	조태봉	라우렌시오	50,000	차현근	프란치스코	100,000	최영만	알베르토	50,000
	한영자	아녜스	30,000						
후원금	익 명	100,000	제대회		95,000				
토지·건축 헌 금	김용진	안드레아	200,000	이현기	마티아	50,000	윤석기	베드로	50,000

본당 부채 현황(교구 차입금·토지)	금주 토지·건축 봉헌금	본당 부채 적립금
1,264,113,700원	300,000원	57,140,000원

계좌번호	우리은행 1005-601-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(책임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)
------	---

♡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♡

## + 간지 교리 (출처 :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, 《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- I 미사전례》)

◆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 영하는 것과 입으로 직접 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?

○ 성체는 손으로 받아 모실 수 있고, 경우에 따라서 혀로도 모실 수 있습니다(『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』, 제78조 참조). 두 방법 모두 영성체의 효과는 같습니다.

초대교회 신자들은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했습니다.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성체에 대한 존경심과 신자들이 성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입에 사체가 직접 성체를 넣어 주었습니다. 이 관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성경과 초대 교회의 실천으로 돌아가서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하게 되었습니다.

어떤 신자들은 손으로 성체를 받아 영하는 것이 성체에 대한 공경심을 손상하는 큰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전하면서 예전처럼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영성체하기를 고집합니다. 교회 교도권이 정당하다고 허락한 사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이런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. 단 성체를 손으로 받아 모시는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,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체께 존경심의 표시로나, 손이 더러워서 입으로 영성체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